

감정노동자 85.2% “욕설 · 폭언 경험해봤다”

전주시설공단,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인권 보호 협약

전주시설공단은(전성환 이사장) 18일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감정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교류해 나가기로 했다.

센터는 공단 소속 임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순회상담과 교육을

제공, 센터에서 주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에 전주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올해 초에는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노동자 보호’ 실천방안 수립을 위한 논의를 통해 안내창구에 보이스

레코더 설치, 근무취약지역에 비상벨 설치, 감정노동자 마음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등의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MOU를 통한 주기적 상담과 실무자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이다.

앞서 전주시가 지난해 5~6월 분청과 사업소, 구청, 동 등 소속 기관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민원응대 업무 감정노동 종사자 총 228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의 일방적인 폭언과 욕설, 모욕적 언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자(중복답변)의 85.2%가 고객의 의한 욕설과 폭언을 경험했으며, 90.7%가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 88.9%가 억지주장과 무리한 사과 요구, 업무방해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과 매뉴얼의 내용은 친절응대가 전부이며 악성민원 발생 시

개인적 전락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성환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현장에서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도 인격이 있는 귀한 존재라는 기본적인 사실만 잊지 않아주셨으면 한다”며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해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교정에 활짝 핀 목련 전국적으로 따뜻한 날씨를 보인 18일 전주시의 온도가 영상 15도를 웃돌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전북대학교 교정에 목련이 활짝 꽃망울을 터트리 봄을 전하고 있다.

미세먼지 걱정 뚫... 전주 장난감도서관 확대

시, 보건복지부 놀이체험실 설치 공모 2곳 선정 국비 1억원 확보... 송천동 · 인후동에 구축

갈수록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주시가 영유아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체험공간을 추가 조성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설치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돼 국비 1억원과 도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연말까지 총 사업비 4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덕진구

송천1동과 인후3동에 각각 미세먼지와 폭염, 한파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덕진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와 부모는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과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시드림스타트 완산센터 내 전주시 장난감도서관, 전북도립 장애인복지관 등 전주시역

장난감도서관 5개 모두 완공구에 위치한 관계로 이용하기 다소 불편했다.

이와 관련, 새로 설치되는 장난감도서관 2곳은 개인과 기관(어린이집, 유치원등), 만10세~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연 2만원의 가입비만 내면 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만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정,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등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장난감과 도서는 1회에 2점씩 15일간 빌려 이용할 수 있으며 월간 2회까지 대여할 수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운영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 친밀도를 향상 시키고,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간 양육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설치 공모한 60곳 중, 2곳이 선정된 지역은 전주시를 포함해 단 두 곳 뿐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설치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돼 국비 1억원과 도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 사진은 장난감도서관 내부.

‘일제 강점기를 빛낸 위인들’

전주시립 쪽구름도서관, 이달 말까지 테마도서 전시회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테마도서 전시회가 열린다.

전주시립 쪽구름도서관은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어린이실에서 일제 강점기를 빛낸 위인들을 주제로 한 테마전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테마전은 3.1운동 당시의 분위기를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애국선열들이 조국 독립을 위해 처절했던 희생정신을 소개

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공화정을 천명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들이 전시를 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1919년 3.1운동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까지를 그린 만화도 전시된다.

특히 1910년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이 사라진 지 9년이 지난 1919년에 ‘민주공화국’이 세워지기까지

의 과정을 조명했다.

이와 관련, 쪽구름도서관은 3월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공감·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매달 주제를 달리해 테마도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테마 도서 전시회를 통해 100년 전의 아픔을 기억하고,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 힘썼던 인물들을 통해 그 동안 잊혀졌던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마약 · 음주운전 사범

적극 보호관찰 구형

버닝썬 사태 등 발생 따라 법무부, 재범 방지 나서

‘버닝썬 클럽 사태’, ‘윤창호 사건’ 등 마약·음주운전 문제 관련 범죄에 대한 확산이 우려되면서 법무부가 관련자들에게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관찰을 구형해 재범 방지에 나섰다.

법무부는 마약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과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구형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실형이 구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보호관찰을 부과 등 의견 개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외, 마약·알코올 등 관련 재범 우려가 있어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검찰청이 집계한 마약 사범 재범률은 2017년 36.3%, 경찰청이 밝힌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다.

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마약과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7년 7%와 5.3%, 2018년 5.1%, 4.4%로 낮아지는 등 해당 조치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마약·음주운전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형 선고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석훈 기자

주점 행패에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익산경찰, 30대 현장서 체포

만취 상태로 주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모(3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 20분경 익산 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져 자판기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위에 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손님이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B경위의 얼굴과 어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하거나 상가 물건을 파손하는 등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심야 틈타 상습적으로 묘목 절도

남원경찰, 용의자 3명 입건

심야를 틈타 상습적으로 묘목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 등으로 A모(33)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9시경 남원시 B모(48)씨의 밭에 숨어져 있던 묘목을 1t 트럭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인근 아산과 도로변 묘목 밭을 돌며 4차례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의 묘목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



쇄회로(CC)TV 영상자료 등을 분석해 A씨 등을 잡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묘목 밭을 탐문한 뒤 밤 시간을 이용해 차를 대고 나무를 훔쳤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기자

완주서 부부싸움 하다 불 지른 남편 불구속 입건

부부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불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현주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분경 완주군 봉동읍의 자택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본 아내 B모(36)씨가 신속하게 불을 진화에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

았다. 당시 B씨는 불을 끄려다가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다투다가 화끈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가 다치긴 했지만 불을 끄다 다친 행위는 과해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방화 치상 대신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정보보안 교육 실시

전주시가 개인정보와 보안정보의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8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시 산하 정보시스템 담당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각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부 용역업체 인력을 통한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담당자와 참여인력의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전주시 정보보안 정책 및 정보보안 동향 △용역사업 수행 보안관리 절차 △개인정보 위·수탁에 따른 감독·준수사항 △통제구역 출입에 대한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용역업체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중요정보 유·노출 위반 및 사이버 침해 유형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 등 사전예방과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안내했다.

/송효철 기자

덕진노인복지관 재능나눔지원 개시

전주시 덕진노인복지관(관장 하갑주)은 지난 15일 복지관 2층 호반홀에서 ‘2019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능을 보유한 어르신들에게 재능나눔 활동 기회를 부여해 노후 성취감을 높이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윤상원 전주 푸른안과 원장이 참여해 ‘백내장 및 노인교정술’을 주제로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했다.

노인재능나눔 활동 참여자 125명은 향후 상담 안내와 학습지도, 문화예술, 기타 분야의 노인재능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및 문화공연 취약계층 기관을 찾아다니며 수혜자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직장서 현금 빼돌려 쓴

50대 집행유예 선고

자신의 직장에서 현금을 빼돌려 사용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모(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127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전주 시내 자신이 근무하는 렌터카업체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1270만원을 빼돌린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대여 및 차량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나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물리치료사 추행 60대 입건

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의 엉덩이를 만진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모(67)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10분경 임실 군내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여성 물리치료사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만져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